

“中, 美수출 10% 줄면 韓 0.36% ↓”

한국은행, 추정 결과 내놔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 영향 커”

“무역갈등, 중경기 악화시 영향 더 커질 수 있어”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0.36% 감소한다는 추정 결과를 내놨다.

7일 한은은 지난달 16일 공표된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활용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중국의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사

용됐는지를 의미)를 분해, 미국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정했다.

미 대선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수입관세 조정(최대 45%)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WIOT를 이용하면 미·중간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0.3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로 소재 산업에 영향이 컸다.

전자·반도체, 석유화학은 각각 우리나라 수출 감소분의 34%와 10%를 차지하고, 산업별 수출 감소율 역시 -0.7%와 -0.5%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국의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22%에 달한다. 이는 수출재의 용도에 따라 중국의 소비나 투자를 위한 최종재와 중국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로 구분되는데,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최종재 31.3%, 중간재 68.7%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중간재 수출을 다시 최종 귀착지별로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43.8%로 가장 컸다. 이어 미국(5.0%), 유럽연합(4.3%), 일본(2.0%) 등 제3국이 24.9%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은 75.1%로 지난 2009년 보다 11.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대중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1.3%로 14.9%포인트 늘어났기 때문

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를 위한 우회수출 비중은 36%에서 24.9%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은은 “미·중간 무역 갈등이 현실화돼 미·중간 교역이 감소되더라도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교역 증가로 대체되면, 이들 국가를 통한 우리나라의 우회수출 증가로 중국을 통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우리 수출에서 중국 내수의 중요도가 확대된 만큼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이 중국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IO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네덜란드 과학재단(NWO)의 지원 하에 흐로닝언(Groningen) 대학, 독일의 유럽경제연구센터(ZEW), 경제협력기구(OECD) 등 유럽 12개 연구기관이 참여·작성했다. 우리나라와 EU 28개국 등 총 43개국(56개 산업을 대상으로 했다. /뉴스

KT ‘목소리 인증’ 결제 서비스 출시

KT는 목소리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KT 인증 앱을 통해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KT가 선보인 ‘목소리 인증’은 사용자 고유의 음성을 생체 인증 정보로 등록한 다음 휴대폰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비밀번호(PIN), 지문인식 기능만을 제공해 온 KT 인증 앱에 추가 적용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T 인

증 앱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등록하면 된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녹음한 스피커 목소리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적용, 목소리 복제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KT 인증 앱은 만 14세 이상의 KT 및 KT 알뜰폰 고객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안드로이드폰(Android 4.0이상 지원) 이용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이폰(iOS 9.0 이상 지원)용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뉴스

아이폰7, 갤럭시S7에 1위 자리 뺏겨

국내 출시 1달만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7’이 출시 한 달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7’에 판매량 기준 1위 자리를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장조사업체 아틀라스 리서치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갤럭시S7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인한 여파를 막기 위해 갤럭시S7 시리즈에 블루코랄 색상을 추가했고,

이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7 시리즈 판매량은 지난달 11일 갤럭시S7 옛지 블루코랄 색상 출시 이후 하루 판매량이 1만5000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블루코랄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S7 판매량은 하루 1만대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오는 9일 갤럭시S7 옛지 유광블랙 모델을 추가할 수도 있어 당분간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

금감원,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편 추진

체대생 위험등급 3등급 쟁점 신규 직업·업종 반영 검토

보험료를 결정하는 직업별 상해 위험등급이 일부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열린 경기지역 금융으로수령 현장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으로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건설현장 근로자, 배달원(운반원), 체대생 등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상해위험등급 분류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분류하고 있다.

쟁점은 체대생의 위험등급이다. 위험도가 낮은 1등급으로 분류된 고등학생이 체대에 진학할 때 3등급으로 갑자기 바뀌어서다. 보험사는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직업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을 손질했다.

역술인과 미용보조, 음식점 안내원 등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목제공과



거울에 비친 스포츠카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16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출시된 쉐보레 카마로 SS 블랙이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오는 11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16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출시된 쉐보레 카마로 SS 블랙이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오는 11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방법사 등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르고 PD와 영화감독, 소방공 등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내려갔다. 기존 3등급이었던 항공대학생과 특수대학생은 다른 일반 대학생과 같은 1등급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본인의 위험등급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보험사 등의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

채권시장안정펀드 준비작업 착수

금융위, 필요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갈등 해소를 위한 채권안정펀드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변경 및 규모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필요할 때 즉각 재가동 되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애로와 중위험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이 펀드 가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은 또 산업은행 등을 통해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위험 회사채 발행여건을 개선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

증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을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 휴면예금 신규 출현 등으로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도 서울보증과 참여은행 등과 협의해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점검반에서 시장을 밀착 점검하고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점검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